

생명 옹호론자 (pro-life) 운동가이자 일곱 자녀의 어머니인 루스 파칼룩(Ruth Pakaluk).

이제 루스 파칼룩의 시복 절차가 시작되어 그녀는 "하느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2025-11-9

생명 옹호론자 (pro-life) 운동가이자 일곱 자녀의 어머니인 루스 파칼룩 (Ruth Pakaluk).

이제 루스 파칼룩의 시복 절차가 시작되어 그녀는 "하느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

바티칸 성인 시복 시성성에 따르면, 루스 파칼룩의 생애는 교회가 언젠가 그녀를 성인으로 선포해야 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파칼룩이 생전에 거주했던 우스터 교구는 교황청 성인성성부의 승인을 받아 그녀의 생애에 대한 공식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이는 시성 선포를 위한 다음 단계입니다.

루스 파칼룩은 매우 따뜻하고 재능 있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루스 파칼룩은

하버드에서 무신론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으며 졸업 다음 해 가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가톨릭으로 개종한 후 그녀는 가족을 키우고 생명 보호 운동에 헌신했습니다. 33세에 루스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1998년에, 41세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그녀는 친구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주신 삶을 사랑했습니다. 다른 어떤 삶을 살았더라면 하는 바람은 없습니다.”

일곱 자녀의 어머니였던 그녀는 생명권 운동에 깊이 관여했으며, 본당 생활과 오푸스 데이 사도 활동 조직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undonggaija-ilgob-janyeoyi-eomeoniin-
ruseu-pakalrug-ruth-pakaluk/ (2026-1-19)